"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고"…자영업자 생존 위기

소상공인 체감지수 하락…원가·인건비 등은 부담
식재료값 상승에 가격인상 난감…"버티기 힘들어"

전남광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소비 패턴 변화와 경기 둔화 속에서 새로운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소비 회복은 더딘 반면 원재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하면서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6년 6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2.4, 전남은 68.6을 기록했다.

이는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부진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5월과 비교해 광주는 69.5에서 62.4로 7.1p 하락했고, 전남도 82.6에서 68.6으로 14p 떨어졌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거나 체감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뜻으로, 소비 위축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외식업계다.

육류와 채소류, 식용유 등 주요 식재료 가격 상승에 이어 커피 원두와 우유, 제과 재료 등 카페와 소규모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품목 가격도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배달 플랫폼 이용료 등 각종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매출 대비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비용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고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자영업자들은 수익 감소를 감수하며 버티는 경우가 많다.

광주 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원두와 우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전기요금 부담도 커졌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바로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남는 이익을 줄이면서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도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상승했고,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인력 운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는 직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직접 매장 운영에 참여하거나 메뉴를 축소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 역시 쉽게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매출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하지만 임대료와 공과금은 매달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곧바로 경영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

지역 상인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단순한 경기 침체와는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높아진 비용 구조 때문에 과거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구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지금은 비용 부담이 너무 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장사하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지원 정책도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비용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금융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는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과 소매업 등 자영업 비중도 높은 지역인 만큼 골목상권 회복 여부가 지역 내수 경기와 직결된다"며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 1030세대 예약 인기 삼성전자는 지난 28일부터 진행 중인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판매가 8월 3일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열기를 더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고객들이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1인당 10만원 결정

분쟁조정위, 사생활 정보 유출 책임 인정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피해자들의 보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올해 4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지난 7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당사자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소비자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배상 책임 인정의 주요 근거로 판단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 생활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커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과 관련된 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나타난 점도 고려됐다.

위원회는 쿠팡이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온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불안을 겪은 만큼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과 함께, 유출 정보가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홈플러스 노사, 영업 정상화 자구계획 협력

홈플러스 노사가 기업 회생과 영업 정상화를 위해 자구계획 이행에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홈플러스는 최근 양대 노동조합인 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와 민주노총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직원대표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회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자구조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노사는 현재 추진 중인 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일부 임직원 처우와 임금 지급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회의 지원을 통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집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오는 9월 지급 예정인 정기상여금은 6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Lotto 6/45

로또 6 7 11 15 39 43

로또 1등 9명…당첨금 각 30억9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3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7, 11, 15, 39,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30억909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2명으로 각 565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원씩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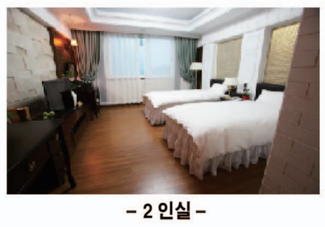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404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8만5719명이다.

• 회원모집 안내

(단위:백만원)

구 분	분양금액	구좌	회 원 특 전
VVIP (A형)	700	6좌	-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 (1일 · 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그린피50% 할인, 연25회그린피면제 (1일 · 1회 사용) 지정회원에 그린피 면제 위임시 동반3인 그린피 70%할인 (1일 · 1회 사용) 비회원에 그린피 면제 위임시 그린피 70%할인 (1일 · 1회1팀4인 기준)(단, 그린피 면제는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중 1일 · 1회만 사용가능)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 · 1회 사용)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 · 1회 사용)
VVIP (B형)			-회원 없음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월 5회 소멸성,1일 · 1회1팀4인 기준)
VIP 정회원	500	9좌	-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 (1일 · 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50% 할인, 연20회그린피면제(1일 · 1회 사용)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 · 1회 사용)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 · 1회 사용)
하트 정회원	320	5좌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 · 1회 사용), 골프텔 할인혜택 -지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 · 1회 사용)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72회 사용/월 6회 소멸성, 1일 · 1회 사용)
해피 정회원	180→160 (할인 20)	3좌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 · 1회 사용), 골프텔 할인혜택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36회 사용/월 3회 소멸성, 1일 · 1회 사용)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골프호텔 객실


- 2 인실 -

- VIP 4인실 -

- 별채 -

- 별채 -

HAPPINESS COUNTRY CLUB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표전화 061) 330-5000 | 예약전화 061) 330-5001~4